

## R-17. 유지관리기 치주환자의 전치 및 소구치에서 잔존치조골량에 따른 교합력의 비교연구

송규원\*, 정진형, 임성빈

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### 연구목적

만성치주질환은 치주조직의 파괴를 야기하게 되고 치주조직은 질적변화와 양적변화를 일으키게 된다. 결국 일반적인 치주처치가 완료된 후에는 감소된 치주조직을 갖게 된다. 교합력을 전달하여주는 것은 치주조직중 치주인대가 주로 담당하게 되고, 그 기능이 부실할때에는 저작능력감소, 불편감등이 발생하게 된다. 이에 질적으로 건강한 유지관리기의 치주질환자에서 잔존치조골량에 따른 교합력의 변화를 측정하여, 치주조직의 양적변화와 교합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.

### 연구대상 및 방법

#### 1. 연구대상

- 단국대학교 치주과에 내원한, 6개월 이상의 유지관리기에 있는 환자 17명
- 치은지수(Gingival Index)가 0인 치아
- 편측저작습관, 구강악습관, 불량보철물, 부정교합, 전신질환, 교합성외상등은 제외
- 교합성외상이 있거나, 반대악이 무치악 또는 저작불능인 경우는 제외하였다.

#### 2. 연구방법

##### 1) 방사선적 잔존치조골량 측정

파노라마사진상에서 CEJ에서 1mm하방에서부터 apex까지를 5등분하여 해당 level측정

##### 2) 교합력의 측정

MPM-3000이란 교합력계측기를 사용, 치아당 2번을 측정하여, 그 중 큰값을 채택

##### 3) 통계처리

4전치군, 견치군, 소구치군으로 분류하여 SPSS ver 10.0 for window사용

실험방법의 신뢰성을 위해 paired T-test사용

각 bone level에서의 교합력을 상호비교하기 위해 one-way ANOVA사용

### 결론

상하악4전치, 견치, 소구치 그룹 모두 잔존치조골량이 감소함에 따라 교합력도 감소하였으며, 4전치 그룹과 소구치그룹에서는 3/5 level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( $p < 0.01$ ), 견치그룹에서는 2/5 level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( $p < 0.01$ ). 이러한 결과는 치료계획에서 발거대상치아의 결정이나 보철적 설계, 또는 전반적 치료의 예후판단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.